



토요나눔마당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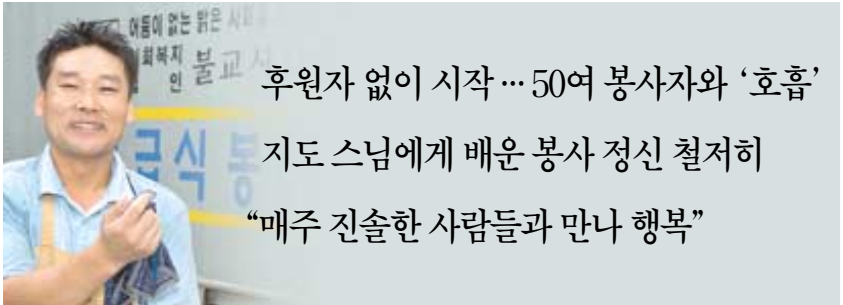
달성공원 '토요나눔마당' 주방장 **이만희** 거사

앞치마 두르고 국자들고...간 맞추기 10년 노하우 '일품' 나누면 내가 즐겁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제10호 태풍 우콩의 북상소식에도 아랑곳없이 대구 달성공원이 시끌벅적하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가 주관하는 야외경로급식소 토요나눔마당이 열린 것.
비가 오는데도 나무주걱이며 국자, 소쿠리 등 주방기구를 가득 실은 토요나눔마당 전용 박차가 달성공원 원송이 우리 옆 수숫가에 자리 잡았고, 비를 피하기 위한 가로세로 10m 규모의 대형천막이 세워졌다. 대형버너 위엔 300인 분량의 국을 한번에 끓일 수 있는 대형 솥이 다섯 개나 걸렸다.
대구 전역에서 동참한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파와 콩나물을 다듬고 무를 썰다가 하면 필필 끓는 물에 수저를 삶고 식기를 소독하느라 아연이다. 또, 부모님을 따라 온 학생 봉사자들도 천막주위에 몰

습함을 흘렸다. 오늘 메뉴는 쇠고기국밥. 원래는 비빔밥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따른 국밥으로 바꿨다.
고기를 넣은 솥이 끓자 이만희 거사가 능숙한 솥씨로 불 조절을 하고 잘 다듬어진 콩나물과 무, 파 등 재료와 양념을 넣은 뒤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이만희 거사의 경로급식경력 10년의 노하우가 모두 드러나는 순간, 한번에 간을 맞추는 솥씨가 일품이다.
"이 모든 것을 지도 스님에게서 주걱으로 맞아가면서 배웠습니다."
80년대 후반 대불청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도 스님과 인연으로 토요나눔마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만희 거사. 처음 4년간 매사에 철저하고 엄했던 지도 스님에게 봉사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물론 사소한 관리 요령 하나 하나를 배울 수 있었다.

한 한부분이 됐다.
"봉사활동은 자기 복 자기가 짓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만희 거사가 10년을 넘게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던 이 거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성질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요나눔마당 봉사활동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10여명의봉사자들이 후원자도 없이 스스로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한 주 한 주를 이어가야만 했다. 공원 측의 협조도 구하지 못한 채 200명 분의 공양재료를 일일이 저다 날르고 물을 길어 공양을 준비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주방용기구를 실어 나르는 전용 박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당시 밀양 관음사 종무원이었던 이만희 거사는 매주 토요일 새벽 5시에 밀양에서 벤을 몰고 대구로 올라와 남부정류장 근처의 어느 신도님 댁 주차장에 맞춰 왔던 주방기구를 신고 달성공원에 들어와야 했다. 추운 겨울날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펄펄 내리면 고생과 감격 속에 눈물꽃물을 흘리며 토요나눔마당을 준비했다.
어르신들을 위해 고등어추어탕을 준비하던 날, 고등어 가시를 발라내느라 봉사자들의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했고, 처음 감자수제비를 하던 날, 수제비가 솥에 눌러 붙어 혼이 난 적도 있다. 그리고 오랭국 소동은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찜통에 물을 가득 붓고 오랭을 꾸역꾸역 집어 넣고 끓였는데 찜통 뚜껑을 열자마자 불은 오랭이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쳤던 것.
"주위에선 키득키득 웃지요. 오랭은 풀어헤친 머리처럼 자꾸 튀어 나오지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만희 거사의 10년 봉사세월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따뜻한 사람의 냄새가 가득하다.
이젠 공원측의 협조를 얻어 수숫가에서 토요나눔마당을 진행하게 돼 물을 길지 않아도 되고 한 평 남짓한 창고 공간도 나눠 쓸 수 있게 됐지만 어르신들이 좀더 편한 시설에서 한끼공양을 하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변함이 없다.
대구/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후원자 없이 시작... 50여 봉사자와 '호흡' 지도 스님에게 배운 봉사 정신 철저히 "매주 진솔한 사람들과 만나 행복"

길을 내고, 천막위에 고인 물을 나무주걱으로 펼쳐내며 각자 소임을 다하느라 분주하다.
1996년 무더운 여름날 시작한 토요나눔마당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10여명의 봉사자들이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삶은 감자와 미숫가루 등의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12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래하며 여가를 보내는 새로운 음식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토요나눔마당이 10년의 세월을 이어오는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한 자원봉사자가 있다. 바로 토요나눔마당 주방장 이만희(43,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장) 거사다.
이만희 거사는 이날도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국자를 든 채 대형 솥 앞에서 국

이 거사는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할 철칙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활동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자로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봉사자들에게도 일체 장신구는 착용하지 말고, 봉사하기 편한 복장을 갖추도록 조언한다. 물론 음식을 하다가 재료를 집어먹어서도, 음식 앞에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하나의 철칙은 봉사활동과 사적인 일을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사는 개인명함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처음 토요나눔마당을 시작할 당시, 이만희 거사는 30대 초반의 총각이었는데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97년 결혼 때까지 토요나눔마당은 이만희 거사에게 또 하나의 훌륭한 데이트장소이기도 했다. 그만큼 토요나눔마당은 이 거사의 삶에 중요



전선(케이블) - 천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전대종 광수사 법당)

자등 승강 장치 (등표 조정 작업)

천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윤디불 예수재

신상품

예수재는 생전에 사후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극락왕생 하도록 법의 공덕을 쌓는 불교의식입니다.

종등 팔각봉축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예수재 · 천도법회등

천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망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저렴하게 제작해 드립니다

광고 : 천덕연등에 사용된 캐러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러터입니다. 캐러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천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천덕연등